

시끌벅적 e-스타



개죽이가 할리우드에... 너 참 대단하다

인터넷 동영상 인기 주인공은 역시 귀여운 동물들이다. 매일 인터넷에 애완동물들의 앙증맞은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강아지 '개죽이'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귀여운 강아지가 대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합성이다', '진짜다'를 놓고 네티즌의 논란이 뜨거웠던 이 사진 속 강아지는 '개'와 대나무를 뜻하는 죽 '竹'을 더해 '개죽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다양한 패러디 사진속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세상을 풍미했던 개죽이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동영상으로 재탄생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죽이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은 개죽이의 탄생배경에 대해 설명한 뒤,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찰리 바틀렛'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동영상에는 공립고등학교 교장으로 나오는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10대 딸아이의 방 앞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10대 소녀의 방답게 벽 곳곳에는 각종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있는데 문 옆에 한국 네티즌에게 익숙한 사진이 보인다. 바로 개죽이다. 대나무에 매달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개죽이의 모습을 본 네티즌은 "찾아낸 내가 신기할 따름이다. 개죽이!!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개죽이를 다시 보게 되니 반갑네요", "개죽이다. 어떻게 찾아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회계사의 면접
공인회계사 3명이 대기업과 계약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갔다.
첫 번째 후보가 면접실로 들어가 앉았다.
"2 더하기 2는 얼마죠?"
"4입니다."
두 번째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공식을 입력한 뒤 결과가 나오자 대답했다.
"4입니다."
세 번째 후보도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변을 한참 둘러보더니 면접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호텔 로비에서
호텔 로비에서 두 남녀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기 자기가야..."
"왜 자꾸 불려? 객실로 올라가지 않고서..."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제."
"답답하게 왜. 뭐대? 무슨 얘기야?"
"저 사실은 나 유부남이야. 그것도 애가 둘이나 있는..."
그러자 여자가 안도의 한 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난 또... 호텔비가 없다는 줄 알고 괜히 긴장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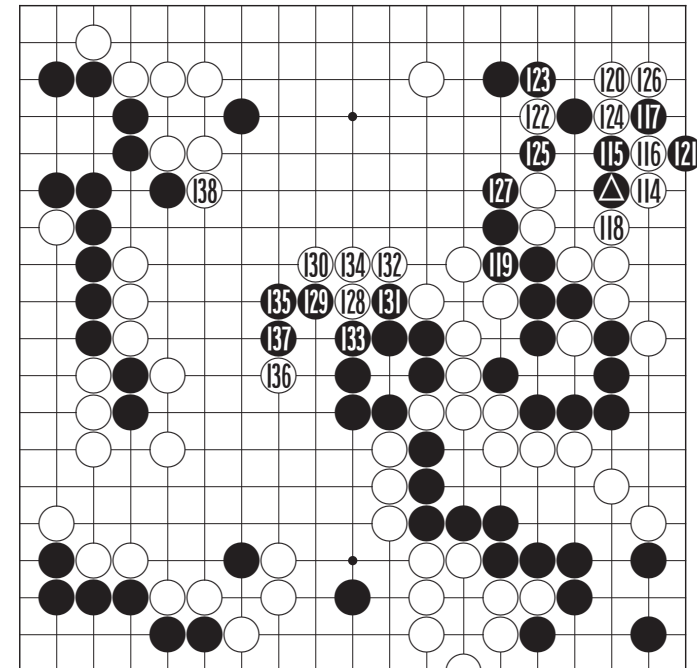
웃기는 남자
50대: 사업 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
60대: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70대: 결혼 안 된다고 레슨 받는 남자
80대: 잠자리가 시원찮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90대: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
구두쇠 회사
악명 높은 구두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폭설로 발이 묶였다. 짙 짙했던 남자가 회사에 메일을 보냈다.

'폭설로 기차, 버스, 비행기 모두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행동 지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어제 날짜로 휴가를 명함.'

이상한 생각
한 남자가 정신병원을 찾았다.
"어떤 증상 때문에 이곳을 찾으셨는지요?"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꼭 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습니까?"
잠시 고민 하던 남자가 대답했다.
"숨이지 때 부터요."

고해성사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대전 동안 유대인 한명을 저희 집 다락에 숨겨줬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속 받았 습니다."
"음...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지진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한가지 여쭙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목사와 할아버지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의 말에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가 다시 물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손들어 보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를 본 목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실겠습니까?"
그러자 연호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다.
"음 있었는데, 다 죽었어."



바둑 소식
지지옥선배 시니어팀 우승
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회에서 양재호 9단이 박지은 9단을 꺾고 시니어팀의 우승을 결정지었다. 248수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양재호는 막판 박지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6집반 차이로 경기를 끝냈다. 시니어 팀은 선두주자로 나선 차민수 4단이 5연승을 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김중수 6단도 4연승으로 선전했다. 반면 여류팀은 이민진 5단이 4연승, 박지은이 3연승을 거두며 분전했지만 나머지 주자들이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시니어팀은 우승 상금 7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바둑 소식
지지옥선배 시니어팀 우승
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회에서 양재호 9단이 박지은 9단을 꺾고 시니어팀의 우승을 결정지었다. 248수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양재호는 막판 박지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6집반 차이로 경기를 끝냈다. 시니어 팀은 선두주자로 나선 차민수 4단이 5연승을 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김중수 6단도 4연승으로 선전했다. 반면 여류팀은 이민진 5단이 4연승, 박지은이 3연승을 거두며 분전했지만 나머지 주자들이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시니어팀은 우승 상금 7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감자 4개, 계란 3개, 참치 1캔, 오이 1개, 양파 1개, 당근 1/2개, 마요네즈 3큰술, 머스터드 1큰술, 소금 2큰술, 식빵

- 1. 오이와 당근 양파 등 야채를 잘게 썰어 소금에 절여둔다. 당근 대신 입맛에 따라 파프리카를 넣어도 색깔과 맛을 살리는데 좋다.
2. 감자와 달걀을 삶은 뒤 감자는 껍질을 벗겨 으깨고, 달걀은 잘게 썰어 놓는다.
3. 절인 야채는 물기를 꼭 짜준 뒤 감자·계란·참치·마요네즈·머스터드를 넣고 잘 섞어준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식빵 사이에 넣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면 영양 만점의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가 완성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음 6월 8일 辛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with text about skin care and contact inform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What's going on? (English/Korean), 2. こっちはこたつですよ. (Japanese/Korean), 3. 有没有? (Chinese/Korean), 4. 中石沒鏃 (중석몰촉) (Chinese/Korean).